

국토부, 순환골재 KS인증 통폐합 추진

- ◇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통폐합 재결정을 수용하여 연내 법률개정 추진 예상
- ◇ 순환골재의 KS인증 전환 시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협회 차원의 대응 예정

국토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순환골재 KS인증 통폐합 재결정('20.12.18)을 수용하고 법률개정과 KS심사기준, 인증절차 등의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이사회(2021-제1차 이사회, '21.1.21)를 개최하여 향후 업계 차원의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KS인증 전환 시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대응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년 KS인증 전환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입법 예고까지 되었으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법제처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된 바 있지만, '20.12.18일 제46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다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하고 미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계획까지 제시되면서 KS인증 전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제1차 이사회('21.1.21)에서는 KS인증 전환 결정이 범부처 차원의 결정이며, 해당 인증이 임의인증으로써 업체의 선택사항이고, 순환골재 품질 신뢰성 문제로 인해 야기된 문제이므로 KS인증 전환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KS인증과 관련한 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유사한 수준의 KS심사기준 마련,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 보유업체의 KS인증 인정, KS인증 제도시행 유예기간 부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KS인증 도입 시 적격업체 평가기준 상 평가 반영 여부 및 적용방안에 대해서 합리적 검토의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KS인증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사회 요구사항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